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 한국서 모멘트에 서비스 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랫폼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서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림영성변호사사무소(한국) 변호사 김의는 이렇게 말했다.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율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율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율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

게 손님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율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채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여행자들이 재한 불법채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채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연락이 오는 사람을 여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채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

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채류자 합법화 서비스를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 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를 필요로 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권리로 면세품을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유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리해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유경봉기자

연계전화 : 13604447151

## 연변, 1,000 여만원 외화 불법거래사건 판결

외화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고 있는바 우리 나라 경제에서 사사로이 외화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은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암거래상’으로 분류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매매하고 이익을 쟁긴다.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불법경영 범죄사건 한건을 심리, 판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

실을 밝혀냈다. 피고인 리모는 2009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국가 관련 부분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채 연길시에서 윤모, 김모, 서모와 함께 불법으로 외화 1,009만 4,706 원을 거래하여 1만여원의 이익을 쟁겼다. 피고인 리모는 죄를 인정했다.

이에 룡정시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리모를 불법경영죄로 유기징역 1년, 징역유예 1년 6개월에 언도하고 인민

페 1만 5,000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리모의 행위는 국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외화를 매매하여 금융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속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전분경영, 전매물품 또는 기타 매매 제한 물품을 허가없이 판매, 경영해서는 안된다.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와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영허가증 또는 비준서류를 매매해서는 안된다. 국가 관련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보험 업무를 경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 결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시장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는 불법경영행위를 금지한다. /리전기자

## 철도경찰 : 타인의 신분증 도용해 고속철 타면 처벌

최근 연변 철도경찰측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고속철을 탑승한 두건의 위법사건을 해명(破获)했다.

한 남성이 혼춘-북경행 G3650번 열차에 탑승했는데 사업일군은 이 남성이 소지한 기차표가 본인의 신분 정보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열차가 사평동역에 정차한 후 승무경찰은 이 남성을 사평동역파출소에 인계했다. 조사에 따르면 혐오는 2023년에 채무분쟁 문제로 법원의 고소비

제한 인원으로 등록되어있다. 사유로 하복성 승객에 갈 일이 생기자 혐오는 회사 직원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승차권을 구매했다. 현재 혐오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철도경찰에 의해 5일간의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

다른 한 사건에서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시역파출소 근무경찰은 실명 검증을 진행할 때 려객 광모가 소지한 신분증의 사진이 본인의 생김새와 다

른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를 파출소로 소환하여 진일보로 조사한 결과가 남성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표를 구매하고 승차한 위법사실을 시인했다. 광모는 호적 정보가 없어 기차표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의 신분증을 도용했다. <중화인민공화국주민신분증법>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연길시역파출소로부터 행정벌금 1,000 원의

처벌을 받았다. 연변 철도경찰은 광범한 려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신분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공민은 이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주었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리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리전기자

## 공안부, 인터넷요원 위법범죄 엄벌

인터넷요원류 사건 2만 7,000여건, 요원 날조 네티즌 3만 1,000여명 조사처리

일전 공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분은 법에

따라 인터넷요원류 사건 2만 7,000여건, 요원을 날조하고 퍼뜨린 네티즌 3만 1,000여명을 조사처리했으며 범규 위반 계정 19만 9,000여개를 폐쇄하고 인터넷요원 정보 156만 2,000여개를 정리했다.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을 조직해 인터넷요원 단속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초점여론 사건을 리용

해 요원을 날조하고 퍼뜨리는 단서를 제때에 발견, 조사처리했으며 자체체 운영 인원의 이화집목, 요원 날조 등 인터넷요원을 리용해 감행한 팬 류량 흡입, 불법리의 도모 등 행위를 단호히 정돈하고 허위위협상황, 재해상황, 치안상황 등 위법활동을 대대적으로 타격했다.

다음 단계에 공안기관은 법에 의해

인터넷요원 위법범죄 활동을 엄벌해 공민의 합법적 권익과 인터넷 생태 질서를 확실하게 수호한다. 광범한 네티즌들은 제때에 관련 부문이 발표한 권위 정보와 요원 정보에 관심을 돌리고 공안기관과 관련 플랫폼에 인터넷요원을 반영한 관련 위법범죄 단서를 적극 고발해야 한다. /중신번치법

## 전국 검찰기관 '하나의 네트워크'로 검사업무 업그레이드

현재 우리 나라 검찰기관은 이미 전국 3,600여개 검찰원을 포함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외부 업무와 데이터의 인터넷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사건 처리 능률성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사업무의 품질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통적인 사건 처리 모델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돌파했다.

◆ '하나의 네트워크' 운영 : 사건 처리 전반 과정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고능률적으로 추진

이전에 검찰일군의 사건 처리는 번잡한 사건 서류에 직면해야 했으며 사건 처리 절차도 규범화되지 않아 사건 처리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전국 검찰업무 응용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국의 모든 검찰사건이 모두 인터넷 시스템에 편입되었으며 디지털화, 지능화 사건 처리가 기존 모식을 대체했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행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감독 사건 처리 규칙에 근거해 16개 업무라인, 365개 사건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 3,700여개 사건 처리 요구를 사건 절차에 편입시켰다.

◆ '하나의 네트워크' 통일 관리 :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 획득해 사건 처리의 질적 효과 확실하게 제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사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검찰기관은 '하나의 네트워크' 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한세대의 데이터' 역할을 발휘하고 검찰업무의 정확

한 관리와 사건 처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검찰업무 응용시스템은 38개 사건 품절 주요 평가 지표를 매일 자동으로 생성해 검찰업무 사건 처리 상황과 추세, 질 제반 데이터 지표를 뚜렷한 위치에 설치했다.

◆ '하나의 네트워크' 일괄처리 : 원스톱 및 일차성 처리 대 중들의 번거로움 줄여

최근 몇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은 12309 중국검찰망을 구축하여 내부 시스템과 일부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4급 검찰원의 위민봉사 사항을 통합했으며 모든 검찰업무 사항은 인터넷의 '한개 창구'에서 처리했다. 12309 중국검찰망에서 변호사 사건문서 열람 등 기능 무 응용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국의 모든 검찰사건이 모두 인터넷 시스템에 편입되었으며 디지털화, 지능화 사건 처리가 기존 모식을 대체했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행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감독 사건 처리 규칙에 근거해 16개 업무라인, 365개 사건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 3,700여개 사건 처리 요구를 사건 절차에 편입시켰다.

◆ '하나의 네트워크' 기능 부여 :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검찰사업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추진

'하나의 네트워크'는 다년간의 검찰업무 데이터를 축적해 검찰업무 응용시스템 사건 카드와 문서 데이터에 대한 지능식별, 분석응용을 실현하고 부동한 업무 수요에 따라 내생 데이터를 가일층 발굴해 류사한 사건 처리, 사법정책 조정에 과학적 참고를 제공한다. /신화넷

## 공안기관, 주유기 부정행위범죄 단속

2023년 8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주유기 부정행위를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전문행동을 전개한 이래 공안부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인터넷환경 정화' 전문행동에 의거하여 주유기 부정행위범죄를 대대적으로 타격했다.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에 포치해 불법 주유기계량계산 칩, 부정적인 원격조종 프로그램 불법 개발, 부정적인 메인보드 칩 판매 등 주유기 부정행위범죄의 관건 고리를 중점적으로 정돈해 부정행위범죄 95건을 수사 처리하고 298명의 범죄혐의자를 나포했다.

행동 기간 공안기관은 또 여러 부문과 연합하여 주유소 758개를 검사하고 탈세금 7억 9,000여 만원을 조사함으로써 정제유 판

매시장 질서와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유력하게 수호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진성하기 위하여 공안부는 법에 의거해 주유기 부정행위범죄를 타격한 5건의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다음 단계에 공안기관은 주유기 부정행위범죄에 대한 고압적이고 엄격한 단속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집법 강도를 일층 강화하며 연합검사 빈도를 높이고 관련 업종 주관부문과 협력하여 목적성 조치를 연구,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주유기 부정행위를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전문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타격정돈과 엄중 처리의 '이중효과'를 실현하고 이런 범죄의 다발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게 된다. /인민넷

## 사례로 법 밀이기-3 네티즌들을 동원해 신상을 터는 방식으로 도적을 잡을 수 있는가?

사례	법적 설명
류씨는 모 백화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 백화점과 협의해 백화점의 CCTV를 보았다. CCTV에 왕씨가 백화점 카운터에 비교적인 시간 동안 머무른 장면이 찍혀있었다. 이것을 본 류씨는 왕씨가 그의 휴대폰을 훔쳤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류씨의 친구 리씨는 왕씨가 찍힌 CCTV 장면을 캡처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글 등 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을 동원해 휴대폰을 찾을 것을 건의했다. 류씨는 왕씨의 신상을 털어	안된다. 민법전 제 111조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타인의 개인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취득하고 아울러 정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지 못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인민넷-조문판



백성철도공안처는 국경철 련휴 기간 려객들에게 평안하고 조화로운 출행환경을 마련해주고저 업무 조치를 세분화하고 과학적으로 경찰을 배치하여 승객들의 원활한 이동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김림일보